

전남 대학졸업반, 코로나 극복 장학금 쏜다...1인당 60만원씩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개 대학 6476명에게 총 39억



「힐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증서 수여식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7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취업과 생활 지원을 위해 '힐내라! 희망전남 장학금'을 수여식을 했다. 전남도청 VIP실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김영록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과 최일 동신대 총장, 전남도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힐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사와 최일 동신대 총장, 전남도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총 20개 대학 6476명에게 1인 60만원씩 준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당초 5800여

명 35억원 규모를 예상했지만 신청자가 폭주함에 따라 4억여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해 총 39억원을 확보, 예정대로 60만원씩 지급기로 했다.

희망전남 장학금은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중 올해 진행이 어려운 해외연수 비용 등을 절감해 장학금으로 돌린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무역회사 취업을 꿈꾸는 심에스터(목포대 4)씨는 "위킥홀리데이, 무역전문과 과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력을 쌓고 있어 어학실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장학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김영록 이사장은 "희망전남장학금은 200만 도민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방하기를 이겨내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전남도에서도 해상풍력, 바이오 등 블루이코노미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며 격려했다.

한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최근 전남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했으며, 522억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광주시,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한다

감염병 예방접종 준비 '박차' 고위험 시설 체계적 관리 등 '대량 확산' 대비 시설 2곳 설립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를 맞아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말 사이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언제든지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

세계적 감염추세도 여전히 해외유입 관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무증상 감염이 많은 데다가, 바이러스 특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장기화 전망에 힘을 보탠다.

정부 역시 코로나19 조기 종식이 어렵다고 보고, 감염병 예방·대응체계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속 일상생활이 균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개인위생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린다.

특히 각 영역별로 세분화된 방역 수칙을 세우고자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이다.

가을철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페렴구균 예방 접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코로나19와 호흡기 증상이 유사한

감염병의 발병율을 크게 낮춰야 코로나19 감염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기적으로는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 거주·요양 시설, 다중이용 의료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시·자치구별 감염병 역학조사팀에 대해 인력을 충원,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 전략은 감염병 대량 확산에 대비한 의료시설과 역량을 확충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조선대병원이 지정돼 추진중인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속도를 낸다. 최근 병원설립 관련 용역연구가 끝났으며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 치료가 가능한 36병상이 들어서는 이 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의 진단·치료를 도맡는다. 권역 내 공공·민간 감염병 관리기관 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역할도 한다.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 역시 궤도에 올랐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억 원을 확보, 조만간 연구 용역을 맡긴다. 시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 등 공익적 사업 취지에 비춰,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외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의료원은 광산구·서구 지역 중 1곳에 설립되며, 음압 시설을 비롯해 250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코로나19 장기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일상과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동시에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전남 대불산단에 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개소

전남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도 근로자건강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27일 서부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전남 서부 근로자건강센터'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과 우승희 이보라미 최현주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전남 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가 위탁 운영하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건강서비스는 주로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한 전문 건강상담을 비롯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작업 관련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각종 건강교육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위탁 운영

전문가들 건강서비스 무료 제공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근로자의 편의를 고려해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동부권과 함께 서부권에도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전남지역 근로자에게 균형 잡힌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장은 "이번 신규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으로 전남지역 많은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건강서비스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동부권에는 지난 2014년 여수에 근로자건강센터가 개소돼 지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